전남대 교수들 비리 심각

논문심사 뇌물수수·연구비 횡령에 성접대 요구까지

최근 3년간 비위 징계 19명 … 전국 국립대중 세번째

전남대 교수(전임교원 이상)들이 최근 3년간 각종 비리와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전국 38개 국립대 가운데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이 3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09~2011년) 국립대 교수 징계 현황'에 따르면 전남대 전임교원 징계대상은 2009년 5명, 2010년 8명, 2011년 6명 등 총 19명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부경대(22명)와 경북대(21명)에 이은 3위이다. 순천대는 지난 3년간 11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목포대·광주교육대는 각각 1건이었다.

전남대 교수들의 비리 및 비위 행위는 논문 심사 과정에서의 뇌물수수에서부터 논문대필이나 논문표절 등 학자로서의 기본 양심을 포기한 내용이 상당수였다.

또한 연구용역 과정에서 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가 하면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유용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학생 성희롱과 전공의들에게 성매매 접대를 요구하는 등 최소한의 체면 마저 포기한 교수들도 있었다.

A교수는 논문 지도·심사와 관련해 4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해임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학생을 성희롱한 B교수와 전공의들에게 성매매 접대를 요구한 C교수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연구비를 부당집행한 교수들과 논문표절 교수들도 각각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 교수들은 견책으로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순천대는 총 11건의 징계 중 8건이 연구용역과 관련돼 대학의 대외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6명이 연구비 편취로 징계를 받았으며, 2명은 연구부정행위(논문 위조 및 변조)로 해임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갓길 주차에 꽉 막힌 도로 개천절이자 징검다리 연휴 마지막 날인 3일 오후 광주 무등산 원효사를 찾은 행락객들의 무분별한 갓길 주차로 이 일대가 극심한 교통혼잡을 빚었다. /김진수 jeans@kwangju.co.kr

전남대 로스쿨 변호사 합격률 89%

전국 25곳중 12위

광주·전남지역의 유일한 법학전문대학원인 전남대 로스쿨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전국 25개 로스쿨 중 12위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별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및 자퇴자 현황'에 따르면 전남대 로스쿨의 2012년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89.6%였다. 전남대 로스쿨 96명의 졸업자 중 86명이 합격한 것이다.

이는 전국 25개 국·공·사립대 로스쿨 가운데 12번째 성적이다. 국·공립대 로스쿨 9곳 중에는 제주대(93.8%)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다.

로스쿨이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자퇴생은 전남대가 20명으로 경북대(20명)와 함께 부산대(25명) 다음으로 많아 결원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 패륜범죄 발생률 1위 '불명예'

10만명당 289.3명

친족을 대상으로 한 패륜 범죄자가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10만 명이 넘었으며, 인구 10만명당 패륜범죄 발생률은 전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약 5년간 친족 대상 패륜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인원은 모두 10만2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유형별로는 살인 1191명, 강도 145명, 강간 및 강제추행 1790명, 절도 2602명, 폭력 7만5880명, 지능 8021명, 기타 1만3319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만400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만300여명, 부산 6500여명, 경남 6300여명, 전남 5500여명, 인천 5400여명 순이었다.

인구 10만명당 친족대상 패륜범죄자는 전남이 289.3명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281.9명), 광주(266.1명), 제주(247.6)명, 울산(203.3명), 경기(200.0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존속 대상 범죄 중 존속 살해는 2008년 45건에서 2009년 58건, 2010년 66건, 2011년 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8월까지 33건의 존속살해 범죄가 발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나원참 〈8660〉 김종두

친구 아파트서 20대女 추락사

3일 새벽 1시10분께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A(여·25)씨가 신음하고 있는 것을 친구(여·25)가 발견, 119에 신고했다. A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의 친구는 경찰에서 "거실에 A씨를 혼자 두고 잠깐 방안에 들어 갔다가 나온 사이 안보여서 찾아봤는데, 아파트 화단에 떨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최승렬기자 srchoi@

"영광원전 불안해서 못 살겠다"

잦은 고장 5호기, 예방정비 작업 후 4개월만에 또 멈춰

지난 2일 영광원전 5호기(가압 경수로형 100만kW급)와 신고리원전 2호기(〃)가 이례적으로 동시에 고장을 일으키면서 가동이 중단됐다. 영광 5호기는 상업운전에 들어간 이후 영광원전의 1호기 등에 비해 고장이 2배 이상 발생,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3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따르면 영광원전 5호기가 지난 2일 오전 10시45분께 증기발생기로 급수를 공급하는 주급수펌프가 정지돼 증기 발생 저수위로 인해, 신고리원전 2호기가 같은 날 오전 8시10분께 원자로 출력을 제어하는 제어봉제어계통 고장으로 각각 발전정지됐다.

한수원은 "이번 고장은 발전소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고장으로 국제원자력기수 사고·고장 '0' 등급에 해당한다"며 "고장원인을 파악·정비 후 발전을 재개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두 원전은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5호기(시운전 2002년 1월, 상업운전 2002년 5월)의 경우 1호기 등 영광원전 내 발전기보다 고장이 잦은 실정이다. 5호기는 지금까지 모두 17건의 고장이 발생했으며, 유형별로는 직원 오작동 2건, 기계 결함 3건, 전기 장치 결함 3건, 계측 장치 결함 7건, 외부 요인 2건 등이다.

반면 영광원전 가운데 가장 오래된 1호기(상업운전 1986년 8월)는 같은 기간(2002년 이후) 고장건수가 8건에 그쳤으며, 2호기(1987년 6월) 10건, 3호기(1995년 3월) 6건, 4호기(1996년 1월) 8건, 6호기(2002년 12월) 9건 등으로 5호기에 비해 고장건수가 적었다. 5호기의 경우 전체 고장 중 가동이 중단된 건수도 7건으로, 1호기 5건, 2호기 4건, 3·4·6호기 각 3건 등에 비해 많았다. 가동중단일수도 11.9일에 달해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도 모두 112억3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호기의 이번 가동 중단은 지난 5월31일 한 달간의 예방정비 작업을 마치고 가동에 들어간 지 불과 4개월만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조익상기자 ischo@

철거중 폐취수장 2곳서 4천만원 상당 전선 도난

철거중인 폐취수장 두 곳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구리전선이 도난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광주시가 관리하는 장성 황룡취수장과 광주시 광산구 송정취수장 철거현장에서 지난 6월께 4000만원 상당의 구리전선이 없어진 것을 철거업체 관계자들이 발견했다.

철거업체 관계자들은 "발견 당시 취수장 주변에는 구리전선 껍질만 널려 있었다"고 말했다. 폐취수장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구리 전선 도난 사실을 파악조차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수배범과 연락 경찰관 징계 처분은 정당"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장병우)는 최근 경찰관 윤모(43)씨가 여수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등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여수경찰서 형사계 강력팀에 근무하면서 사행성게임장 업주 신모씨가 기소중지된 사실을 알고도 신씨와 연락한 점이 인정되며 여수경찰서장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첩보 수집을 위해 업주 등과 통화했을 뿐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현석기자 chadol@

"가족들이 무시한다" 묻지마 난동

쌍나팔

○…명절에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거리로 나와 차량과 상점 유리창을 깨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가 경찰서행.

○…3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노동을 하며 근근이 생활하는 장모(39)씨는 지난 2일 오전 6시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 한 건물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 6대의 사이드미러와 보닛 등을 파손하는가 하면 마트와 제과점, 편의점의 유리문과 진열장을 부수고 주민들을 협박했다는 것.

○…현장을 목격한 한 주민은 "아무리 불만이 많더라도 사람을 공포에 몰아넣는 묻지마식 폭력은 안된다"며 "재발 방지 차원에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문.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